



카페형 베이커리로의 변신 ‘올리브 스트리트’ 새로운 품목 · 매장 구성으로 참신한 이미지 메이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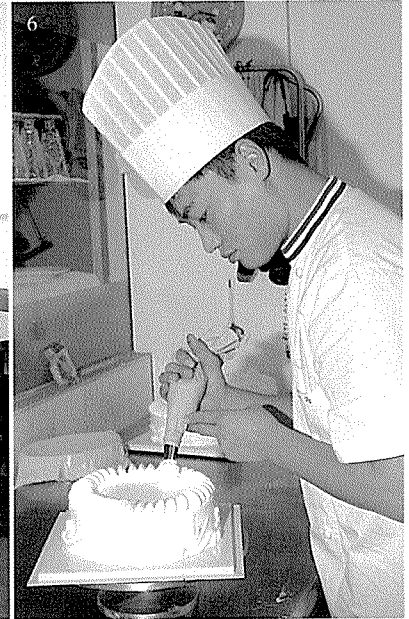
올리브 스트리트(대표 이진국)가 변신했다. 짙은 녹색 톤을 기조(基調)로 나무 등 자연 친화적 소재로 고풍스런 분위기를 자아내던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현대적 감각의 매장으로 탈바꿈한 것.

최근 들어 올리브 스트리트가 위치한 압구정역 인근의 상권은 유명 커피숍 및 카페 등이 속속 입점하는 등 변화를 보여 왔다. 이런 시장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올리브가 선택한 점포 컨셉은 빵류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카페 부문을 강화한, 이른바 ‘베이커리 카페’. 올리브는 기존과 차별화된 ‘매장’, ‘상품’ 구성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 메이킹에 나서고 있다.

올리브는 이번의 점포 재단장에서 외관 전경을 과거의 질

은 녹색 톤에서 밝은 회색 톤으로 바꾸는 동시에 간결한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카페형’ 점포로의 변화된 모습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 점포 전면을 통유리 문으로 바꿔 밖에서도 매장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외관상 크게 달라진 점 중 하나이다.

이번 재단장을 통해 과거에 다소 어두웠던 분위기였던 매장은 훨씬 밝고 간결해졌다. 곳곳에 매입형·노출형 조명을 적절히 설치함으로써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또 벽면과 천정은 흰색, 탁자 및 의자는 검정색, 바닥 및 진열대는 옅은 체리색 등 3가지 메인 컬러만을 적용, 클래식한 느낌이 들도록 매장을 구성하고 있다.



- ① 20여종의 다양한 케이크와 쿠키 진열 코너. 올리브 스트리트는 베이커리 카페로 변신을 꾀하면서 음료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품목을 강화했다.
- ② 점포 전면을 통유리 문으로 바꿔 매장이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했다.
통유리 문은 개폐가 자유로워 여름이면 테라스 부분에 좌석 공간을 배치해 노천 카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 ③ 파운드·롤케이크와 초콜릿·샌드위치·양갱 등이 별도 진열된 쇼케이스.
- ④, ⑤ 매장 안쪽에 좌석 공간을 마련해 고객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음료 및 케이크·샌드위치 등을 즐길 수 있다. 제품 구입 코너에도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은 고객을 위해 또 다른 좌석 공간을 설치했다.
- ⑥ 음료 코너 안쪽에 마련된 15평 정도의 조리장. 이곳에서 마무리 작업을 거친 케이크와 샌드위치 등이 매장에 진열되거나 고객에게 제공된다.
- ⑦ 올리브 스트리트에서 인기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쿠키 세트.

7

‘카페형 베이커리’로의 변신에서 나타나듯 올리브의 ‘상품’ 구성도 이전과는 크게 다르다. 과거에 비해 품목이 줄어든 빵류 80여종은 매장 중앙에 진열돼 있는데, 식빵·유럽빵·건강빵 등 테이크 아웃(Take Out)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커피 등 음료와 함께 좌석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케이크와 샌드위치 등의 품목은 이전보다 강화됐다. 생크림·무스·크림치즈 등 20여종의 케이크와 햄치즈·갈레고·크루아상·훈제 살몬 등 10여종의 샌드위치를 구비해 고객이 이들 품목과 음료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가에서 1,000원만 추가하면 커피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5가지 세트 메뉴도 돋보인다.

올리브 스트리트는 이밖에 과일 주스·셰이크·아이스크림 및 빙수 등과 쿠키·초콜릿·양갱·베이비 슈 등의 품목을 구비, 음료 및 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품목 위주로 상품을 구성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베이커리 카페’로서의 자리매김에 나서고 있다.

<취재·박종선 / 사진·박경배>